

구례 호양학교 동종, 74년 만에 세상 밖으로



일제 강점기 민족교육기관인 구례 호양학교 동종이 최근 지리산역사문화관으로 이관돼 일반에 공개됐다. /구례군 제공

구례교육청, 郡에 공식 기증...지리산역사문화관 이관 1908년 설립 민족교육기관 호남 인재육성 산실 명성

일제 강점기 민족교육기관인 구례 호양학교의 동종이 74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다. 구례교육청은 지난 21일 호양학교 동종을 구례군에 공식 기증했다. 교육청 사무실 책장에 있던 동종은 74년 만에 지리산역사문화관으로 이관돼 일반에 공개됐다. 동종은 1908년에 설립된 민족교육기관 구례 호양학교에서 사용한 학교종이다. 동종에는 태극기 문양 2개가 선명하게 양각돼 있다. 이는 뒷면에 조각된 용과 함께 자주독립국을 상징한다. 구례 호양학교의 교육운동이 자주독립국을

지향한 민족의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물로 평가받고 있다. 호양학교는 구례 출신 학자 왕석보의 후학들이 설립했으며 우곡지사 매천 황현 선생 등 민족 지도자들이 운영을 지원했다. 교사 6명이 12년 동안 학생 100여명에게 지리, 수학 등 신학문을 가르쳤다. 신문화 학교로는 담양 창평의숙과 함께 호남 인재 육성의 쌍벽을 이뤘다. 호양학교는 일제의 말살정책으로 1920년 폐교됐고 동종도 사라졌다. 1946년 호양학교의 후신인 방광초등학교가 설립됐으며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이 방

광초교 교장실에 동종을 기증했다. 26년 만에 찾아낸 경우는 불분명하다. 이후 방광초교가 폐교되면서 동종은 구례교육청으로 옮겨졌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순천대학교에서 보관했으며 2017년 7월부터 지난 16일까지 구례교육청에서 다시 보관했다. 지난 16일 지리산역사문화관으로 이관됐으며 지난 21일 공식적으로 기증식을 가졌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호양학교 동종을 많은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큰 결정을 해준 임윤덕 구례교육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호양학교 동종이 상징하는 민족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양학교 동종은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 상가지구 인근에 자리한 지리산역사문화관 관전실에서 관람할 수 있다. /구례=이성규기자



장흥경찰서 대덕파출소 신축 준공

장흥경찰서는 지난 21일 변화하는 치안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주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덕파출소를 신축, 준공식을 개최했다. <사진> 기존 대덕파출소는 1981년 신축 이후 38년이 지나 건물이 낡고 협소해 직원은 물론 파출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신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2018년 신축사업을 추진해 총 사업비 4억7천900만원, 연면적 271㎡, 지상 2층 규모의 신청사로 재탄생했다. 준공식에는 위동 장흥군의회 의장과 곽태수 전남도의원, 백광철·왕윤채 장흥군의회를 비롯한 대덕읍 기관·단체장 50여명이 참석했다. 최인규 장흥경찰서장은 "준공식이 있기까지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김남현 전남지방청장과 공사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올바른 치안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대덕파출소에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장흥=노형욱기자

여수시, 설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여수시는 22일 "설 명절을 맞아 시민과 귀성·관광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유료 공영주차장 30개소를 23일부터 28일 오전 9시까지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단,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해 주차난이 예상되는 오동도 공영주차장은 제외했다.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으로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 이용객의 주차 편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서교동 공영주차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119편을 지상 2층(3편), 241편으로 확충해 서시장 주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터전을 마련했다. 시는 연휴 기간 동안 주차장 이용객에게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연휴 전 주차장시설 등을 점검하고 화장실과 주차장 주변 청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일부 구간 주·정차 단속 완화 및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통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광양제철소 임직원, 지역 전통시장 방문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이시우) 임직원은 지난 21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날 전통시장 방문에는 광양시, 광양상공회의소, 광양제철소협력사협회, 광양산단협의회, 신금산단협의회, 상공인단체 관계자들과 이시우 광양제철소장을 비롯한 임원단, 설비기술부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간식, 과일 등을 구입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공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 징수 '합법'

법원, 항소심도 담양군 손 들어줘...입장료 논란 종식

담양군이 지역 대표 명소 메타세쿼이아랜드(이하 메타랜드)의 입장료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2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무신)는 1심 판결 결론과 같이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메타랜드는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에 해당되며 입장료 징수는 법적 하자 없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의견을 모두 기각했다. 이는 메타랜드의 입장료 2천원이 메타랜

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 경비라는 담양군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앞으로 메타랜드 입장료 논란은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2018년 5월 메타랜드를 다녀간 관광객 2명이 '도로로 사용되던 가로수길을 막고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하며 시작했다. 2019년 6월 1심 재판부의 담양군 승소 판결 이후,

원고 측 항소 제기로 이어진 2심 재판부 또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에 감사드리며 입장료 징수에 대한 법적 논쟁이 종식돼 기쁘다"며 "담양을 사랑하고 찾아준 모든 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고진성 담양군 녹색관광과장은 "지난해 메타랜드 내에 개장한 예코센터, 개구리생태공원, 호남기후변화체험관과 함께 가족 단위 생태체험 명소로 가꿔 다양한 여행객들이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관광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승규기자

화순군 '청렴 정착 원년' 선포

'청렴 서약' 부패 근절 다짐...31개 시책 추진

화순군이 2020년을 '청렴 정착 원년'으로 선포하고 31개 청렴 시책을 추진한다. 22일 화순군에 따르면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획기적인 개선안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군은 공사 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 사업, 제·세정 분야 등 대외적으로 취약점이 노출된 분야의 업무 지침과 매뉴얼을 정비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업무 지침과 매뉴얼 정비는 업무 현장의 현실성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부서장과 감사팀이 협의해 정비한다. 청렴정책 효과는 부서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이 중요한 만큼 이들의 관심도를 높여 청렴도 향상을 견인한다는 전략으로 15개 단위 시책을 추진한다. 군은 ▲방문민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불허가·반려 민원 사전설명제 ▲청렴도

항상 추진대책 보고회 ▲청렴도 우수기관 멘토링제 운영 등 신규 시책을 추진한다. 명예 감사관 운영, 부실공사 방지 명예 감독관, 청탁금지법 신고센터 운영을 내실화·활성화하고 각종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한다. 또한 김풍수수는 물론 음식 대접과 교통편의 같은 적지만 관행적인 항목과 편의에 대해서도 감찰을 강화해 비리를 차단할 방침이다. 상급자의 부당지시나 예산의 부당 집행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노동조합과 협력해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군은 청렴문화 정착과 부패·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20일 구종근 군수와 최형열 부군수가 청렴서약을 했다. /화순=이병철기자

장성경찰, 전직원 선거법 교육

장성경찰서(서장 이재승)는 22일 경찰서 백양마루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성호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을 감사로 초빙,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

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정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과 선거사법 단속 시 주의 사항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재승 장성경찰서장은 "경찰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http://www.kukje9.co.kr

“맛과 멋을 새롭게”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 자매회사: 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 ▶ 야외 결혼식
- ▶ 칠순잔치
- ▶ 체육대회
- ▶ 야외회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